

# 사 설

## 계획보다 실천이다

조계종이 21세기를 앞두고 수립한 중장기 사업계획은 앞으로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발표한 사업계획은 앞으로의 종단운영 방향을 수행과 포교중심의 승가상 정립, 신도조직 강화, 불교문화 대중화, 불교사회운동 진흥추진, 정보화 인프라 구축, 종단간사설 건립 등 크게 여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6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수행과 포교 중심의 승가상 구현'을 종단운영의 제1과제로 설정한 점이다. 불교종단의 존재이유가 수행과 포교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이를 종단운영의 제1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과거를 반성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교종단은 명목상으로는 언제나 수행과 포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천이 아닌 문제해결을 매우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행이 종단 분리가 일어나고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된 원인으로 기실 수행과 포교라는 사명적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란을 통해 이미 이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 불교계의 장자종단인 조계종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상적인 종단운영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장기 사업계획 발표를 보면서 또 한가지 의미있게 생각되는 것은 불교계도 이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종단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성공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조계종이 발표한 60대 과제가 2002년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러 가지 잡복된 변수가 도사리고 있

는 데다가 과연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 가도 의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유익하게 평가되는 것은 이제 종단이 어느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다. 물론 과거에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교중흥의 전략과 종단발전 과제들이 논의되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즉흥적이고 단기적 과제에만 집착한 것이어서 종합적인 비전의 수준이라고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계획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계획안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종도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다. 지금까지 불교계가 추진해온 각종 프로젝트들은 그 현실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용두사미로 끝난 것들이 많았다. 여기에는 수많은 복합적 요인이 얽히고설켜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대중적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나머지는 끊임없는 대중실력과 강력한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 보수적이고 고루한 인식이 팽만해 있는 집단일수록 이러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러자면 종단지도부가 업적과 성과를 위해 사진 찍기만 좋아하고 존경받는 일에만 익숙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몸으로 뛰어들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대중들의 호응은 저절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욕적인 계획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조계종 중장기 발전계획 6대 정책 60개 과제 선정

## 2002년까지 완료하거나 1차 성과물 도출

조계종은 19일 불교회관1층에서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위원장 인곡스님, 포교위원장 정현스님을 비롯 3인의 부·실장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6대 정책방향과 60개 사업과제를 담은 '화합과 공생의 자비공동체 구현을 위한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6대 정책방향은 ▲수행과 포교 중심의 승가상 구현 ▲신행의 정립 및 신도조직의 강화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통한 전통문화의 재창조 ▲불교사회운동 진흥 추진 ▲종단간사설 ▲불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간사

설 건립 등이며, 이에 따라 부문별로 4~18개의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60개 사업과제는 별도의 운영계획과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연도별 분야별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60개 사업과제는 올해부터 시작해 2002년까지 완료하거나 1차 성과물을 낸다는 계획이다. 각각 신도단체 임원 연수, 자비의 대중화 기금 조성 등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기획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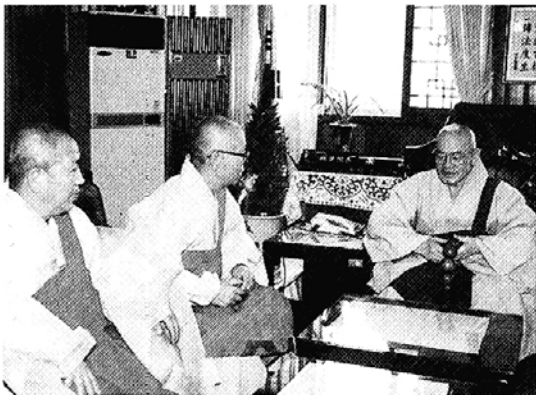
조계종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21세기를 향도할

불교상을 정립하고 △종단사업의 일관성과 집중성 유지 △종단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역할의 역할이 증대되는 사회변화와 승가의 위와 지도력 향상을 요구하는 종도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6대 방향 및 60대 과제 선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계종의 중장기 사업계획은 95년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어 97년

### 사미의제 시행 촉구 조계종 교육위원회

조계종 교육위원 교육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9일 회의를 열고 승가 위계질서의 회복을 위해 사미 승가대학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사미의제의 전폭적인 시행추구를 결의했다. 또 사미니 승가대학(강원)의 학인 수가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내년도 예산에 사미니 승가대학 증설 예산을 확보할 것을 교육원에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사진 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이 19일 만나 선암사 봉원사 등의 분규를 종식하기 위해 두 종단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 '조-태분규' 대화 다시 시작

## 고산스님 "양측대표 실무기구 구성 논의" 인곡스님 "현시점서 종식 큰불교 지향"

조계종과 태고종의 오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두 종단간의 대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과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스님, 두 종단의 부·실장스님들은 19일 조계종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조-태분규 해소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태고종총무원이 북한비보내기 성공 2천만원을 북한동포돕기 불교추진회(총재 고산)에 전달하고, 두 종단 집

행부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인곡스님은 "사찰을 놓고 법정투쟁을 해봤자 서로 득될 것이 없으니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를 현상태에서 끝내자"고 제안하고 "이판과 사관이 합쳐 큰불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산스님은 최근 선학원과 합의문 작성을 언급하며 "조계종에 위원회(조-태분규사찰 해결위원회, 위원장 정후)를 구성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러나 고산스님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와 관련 22일 '8월중 조태위원회를 열어 조계종의 입장을 정리한 후 태고종측에 실무협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태고 분규사찰은 소유권은 조계종에,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는 형태로, 선암사 봉원사 등 10여 사찰에 이른다. 두 종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분규 종식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선암사 등 일부 사찰은 소유권 반환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 선학원 합의안 인준등 조계종총회 안건 확정 22일 종회의장단회의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는 22일 사무처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4회 임시총회(26~30일)에서 논의할 안건 및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안건은 △중앙총회(단우스님) 제명 △사면 등의 △동도사 교구행정 정상화 △영광총림 해체 △동도사 말사(해남사 관동사 문수사) 직영 사찰 지정 승인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 등이다. 정성운 기자

### 추경예산 4억2천6백만원 심의

#### 조계종 상임분과위원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는 21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각 상임분과위원장 및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지명) 연석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4억2천6백만원의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증액 부분은 ▲소송비, 청사경호용역비, 종회 특별위원회 운영비 등 경직 예산 3억1천6백여만원 ▲기초선언, 종비생, 군법당 건립과 군승단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요청에 따른 증액 1억5천8백여만원

▲도난상보해서 발간, 불교정보화(달마넷) 사업, 직장직능신행단 등 사업확대인한 사업비 증액 8천3백여만원이다. 반면 예산안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킨 사업, 업무효율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업비 1억4천1백여만원을 감액했다. 사업규모를 축소 또는 취소한 분야는 한중일 우호교류대회, 포살법회 등이며, 불교문화현상 공모, 불교문화출판사업 등은 내년으로 이월했다. 정성운 기자

### 사찰환경대책위 28일 결성 활동시작

사찰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 결성이 28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결성식에 앞서 오후 1시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공동대표(해인사 주지 보광스님, 사회부장 정호스님, 종회사회분과위원장 여연스님), 대책위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결성식에서는 대책위 활동계획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찰환경 침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정성운 기자

### 중앙신도회 선관위 대의원 305명 구성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오는 8월 20일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20일 신도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의원 3백55명으로 구성된 '중앙신도회장 선거인명단'을 확정했다. 선거인들은 25개 교구분사 대의원 236명과 9개 신도연합단체 대의원 58명, 초대임원(부회장단)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칼럼 6면> 김재경 기자

### 해외거주자에도 포교사자격 조계종 국제포교사관리령 개정키로

조계종은 15일 총무원회의에서 해외포교인력 양성과 포교활동화를 위해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한 국제포교사 자격시험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포교사관리령'(98년 7월8일 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거주 조계종 스님, 조계종 해외사찰 주지스님의 추천을 받은 해외거주 2년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국제포교사 시험이 실시되

며 시험과목은 불교의 기본사상과 문화, 현대사상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영어 인터뷰 등의 전형으로 치뤄진다. 하지만 국제포교사 연수생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 국내 거주 연수생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실시되는 자격시험으로 자격시험을 대체하게 된다. 국제포교사는 현재 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조계종 중장기 사업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초 등 10여종의 원재료를 7년간 개발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영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은 스님의 열공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영 합장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승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초초외에 10여종의 원재료를 7년간 개발시킨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유무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글로 쓰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늄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된 작물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